

 상주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		보 도 자 료	
배포일자	2026. 10. 07.(수)	매수	2매 (사진 별도)
실장	한은주	전화	054-530-3042
담당	김진이		054-530-3029

상주적십자병원,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입원·출산 준비물품 지원



상주적십자병원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경



상주적십자병원 분만실 전경

-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추진 중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비를 활용해 의료취약계층 환자와 외국인 산모의 안정적인 치료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입원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.
- 이번 지원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병동 또는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환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어려운 환자와, 출산을 앞둔 외국인 산모 중 경제적·사회적 여건으로 출산을 위한 입원 시 필요한 기본 물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.
- 일반 입원환자 지원 물품은 기저귀를 포함한 6종의 물품으로 구성되며,

외국인 산모에게는 출산을 위한 입원 시 필요한 기본 준비물품을 지원하여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및 출산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.

- 지원 물품은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구성되며, 비록 소액의 물품 지원이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자와 산모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상주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운영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,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.
- 상주적십자병원은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치료뿐만 아니라 출산 등 생애주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김혁수 병원장은 “경제적 어려움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입원과 출산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산모들에게 작은 지원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”고 말했다.